

알아두면 쓸모있는 브랜딩 뉴스



B R A N D  
O P E N  
N E W S  
D I G E S T

Vol. 240



OLD



NEW



## 애플에 로고 표절 고소 당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배 모양 로고 사용한 회사, 앞사귀 변경으로 애플과 합의

지난해 한 회사의 로고를 두고 벌어진 애플의 법적 조치가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매체 '더 버지'는 애플의 일명 '사과 마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당했던 한 회사에 대해 보도했다. 아동 식품 업체 '수퍼 헬시 키즈'가 운영하는 요리 어플리케이션 '프리페어(Prepear)'로, 서양식 배를 이용한 로고를 선보인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프리페어'에 대해 "애플 자체의 유명한 과일 모양의 특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면 안 된다"라며 소송을 걸었다. 두 회사는 약 6개월 만에 로고를 변경해 합의에 도달했다. '프리페어'는 앞사귀의 모양을 타원형에서 반달 모양으로 바꿔 애플의 동의를 얻어냈다. 애시당초 "미니멀한 과일의 디자인이 애플 로고와 유사한 상업적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앞사귀 모양의 변경만으로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심플 그 자체’ 인터밀란, 새 로고 ‘3월 출시 예정’

리브랜딩 작업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로고 유출

축구용품 전문매체 ‘풋티 헤드라인’은 10일(한국시간) 2021년 새롭게 바뀔 인터밀란의 로고를 공개했다. 인터밀란은 3월에 리브랜딩을 통해 브랜드 혁신과 쇄신작업을 돌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단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로고는 변경된다. 앞서 인터밀란은 네라주리(검정-파랑, NErazzurri)의 특색을 로고에 더 잘 들어나게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밀란은 유벤투스의 엠블럼 교체 사례를 참고한다. 지난 1월 이탈리아 ‘미нути 디 레쿠페로’는 “앞으로 새로운 인터밀란 로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인터밀란은 유벤투스의 사례를 참고해 이미지 쇄신을 노린다”라고 전한 바 있다. ‘풋티 헤드라인’은 “인터밀란의 로고 유출은 최근 구단에 의해 제출된 상표 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인터밀란의 새로운 로고는 전체적으로 모양을 단순화하였으며, ‘Inter Milan’을 상징하는 ‘IM’로고가 가운데 새겨져있다.

# 2021 텐바이텐 지역 감성 체험 프로젝트

온라인에서 '서촌'의 감성을 만나보세요!



## 텐바이텐 지역 감성 체험 프로젝트 '즐거찾길 서촌편'

독립 서점 '오프투얼론' 시작으로 순차적 브랜드 이벤트 진행

브랜드 협업 굿즈 제작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텐바이텐이 집콕 생활에 지친 소비자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자인 상품 전문 쇼핑몰 텐바이텐(10x10)은 종로구 서촌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지역 감성 체험 프로젝트 '즐거찾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텐바이텐 '즐거찾길' 프로젝트는 특정지역의 감성을 담은 오프라인 브랜드를 온라인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집콕 생활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자인 상품 전문 쇼핑몰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고유의 감성을 담은 굿즈 제작과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매장 방문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브랜드에게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상표 이미지 검색

조회 대상	주요 검색결과 예시 (상표DB에서 검색)				
					

\* 출원일자 등과 관계 없이 유사 이미지로 검색한 주요 결과임

##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에 인공지능 도입된다

### AI기반 상표·디자인 검색서비스 개통...디지털 전환 가속

특허청의 상표·디자인 심사에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선행등록 이미지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AI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5일부터 심사·심판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상표·디자인심사에 AI기술이 적용되면 심사관들은 심사 건당 수 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심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AI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체 보유한 약 200만 건 이상의 상표·디자인 이미지를 AI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으며, 2년간의 연구 실증·구현 및 시범 운영을 거쳤다.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반에 AI기술을 도입,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 매일유업, 신축년 소 캐릭터 한정 패키지 출시

매일유업 신규 패키지, 두 달 한정 적용

매일유업이 흰 소의 해를 맞아, 대표 우유 제품에 소 캐릭터를 적용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새 옷을 입은 제품은 매일유업의 대표 가공유 브랜드 ‘우유속에’ 시리즈와 커피우유 ‘커피속에 모카치노’, 매일우유 오리지널 2입 기획팩이다. 우유속에 시리즈는 2003년 출시 후 18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장수 브랜드다. 매일유업이 새롭게 개발한 캐릭터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기념한 소 캐릭터로 ‘편안하소’, ‘대박나소’, ‘행복하소’라는 새해 인사를 전한다. 신규 패키지는 3월까지 두 달 한정으로 적용되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매일유업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즐거운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집콕생활에 지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적용 의도를 밝혔다.



**OLINIQ**  
BEYOND NUTRITION

## 동원F&B,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리닉' 론칭

체험 샘플을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동원F&B(대표 김재옥)가 VIP를 위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리닉'을 론칭하고 신제품 6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리닉은 영양관리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는 제품을 추구하는 VIP 소비자들을 위해 탄생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브랜드명 '올리닉(OLINIQ)'은 영단어 'all'과 'unique'의 합성어로 '뉴트리션(영양관리)의 모든 것을 담아낸 특별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동원F&B는 종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올리닉 브랜드를 기획했다. 18년간 건강기능식품 영양 상담을 통해 축적된 고객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해 컨셉을 설정하고 기능별로 6종의 제품을 만들었다. 올리닉은 특허 및 개별인정형 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성을 함유한 제품 6종으로 구성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보성군, 새 브랜드 쌀 '보성쌀 차곡차곡 새청무米' 출시

득량만 새청무벼 시범단지서 재배...GAP인증

전남 보성군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은 새 브랜드 쌀 '보성쌀 차곡차곡 새청무米'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보성쌀 차곡차곡 새청무米'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고품질 벼 '새청무'를 단일품종으로 가공했다. 새청무 품종은 적당한 찰기와 쌀 본연의 풍미가 오랫동안 유지돼 주먹밥, 도시락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축된 쌀 판매시장에서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보성 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득량만 간척지에 새청무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고품질 쌀 품질 기준에 맞춰 생산한 원료곡만을 선별 수매한 후 도정해 상품을 가공한다. 특히, '보성쌀 차곡차곡 새청무米'는 신규 브랜드임에도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GAP 인증을 받았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인증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농약, 중금속 등의 요소를 산지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인증 기준을 지킨 농산물에만 부여된다.



## 울산 방어진항 ‘용가자미’ 캐릭터 개발

포장 용품 적용, 캐릭터 모양 빵틀로 먹거리 판매 등 홍보에 활용

울산시 동구는 지역 특산물인 용가자미를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방어진항이 전국 최대 용가자미 생산 어항이다.

우리나라 국가 어항 중 위판장 면적이 가장 넓은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캐릭터를 만들었다.

캐릭터는 몸을 뒤집었을 때 눈이 보이는 용가자미 특징을 살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제작됐다.

동구는 방어진항에서 건어물 등을 판매할 때 이 캐릭터를 포장 용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어진 용가자미 캐릭터 모양의 빵틀을 제작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방어진항 관광 거점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 따르면 방어진항에서 잡히는 가자미 중 90%가 용가자미다.



## 마린이노베이션, 해조류 계란판으로 친환경 패키징

WPO 개최 2021 월드스타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에서 수상

SK이노베이션이 육성 지원하는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이 이달 초 친환경 계란판 제품으로 세계포장기구에서 개최한 2021 월드스타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월드스타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는 혁신·친환경적인 포장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WPO가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포장재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갖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재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의 계란판은 해조류 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원가 절감은 물론 90일 이내에 100% 생분해가 가능하다.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마린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용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